



지안 스님 (은혜사승가대학장)

마음 속 부처 씨앗 싹 틔울 수 있길...



바른 마음으로

서원 세우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긍정적인 각오를 가져야

원 이룰 수 있어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두 가지 원(願)을 세운다. 자신을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다짐하는 원과 약속은 그러나 유효기간이 짧아 길어야 두세 달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서원이라야 원을 이룰 때까지 마음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

부처님 당시 인도 코살라국 바사니왕의 공주 승만부인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난 후 10가지 큰 서원을 세웠다. 계를 범하지 않고, 바른 법을 깊이 새겨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서원이다. <아래 표 참조> 이어 승만부인은 모든 곳에서 정법의 지혜가 얻어지고, 이를 싫증내지 않고, 목숨과 재산을 버려서라도 정법(正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처님은 "세 가지 큰 서원은 일체의 물질이 모두 공제(空界)에 들어가듯이, 이와 같이 황하의 모래 같은 모든 서원이 모두 다 이 세 가지 큰 서원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니, 이 세 가지 서원은 진실로 광대한 것이다"하고 승만부인에게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授記)를 내린다.

승만부인이 세운 '모든 서원이 다 섭수(攝受)되는 큰 서원'이란 무엇일까? 승만부인이 세운 '한 가지 큰 서원(一乘)'의 참뜻을 알기 위해 1월 26일 해인사 팔만대장경 강설대법

했'는 원을 세우라 하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부처님처럼 살라고 하나'며 세상 뜻을 합니다. 의지가 나약하고 신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세상이 어떻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불자들이 '내가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중생이지만 나의 근본 바탕은 부처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승만부인이 살고 있는 '여래장(如來藏) 사상'이 바로 이러한 이치를 말합니다. 승만부인의 서원을 보십시오. 어렵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서원입니다. 불교는 실천입니다. 교리를 알고 참선과 염불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멀리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서원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각오를 먼저 가져야 원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스님은 <승만경>에 설해진 여래장 사상에 대해 설명했다.

"<승만경>은 여래장사상의 체계를 세우는 뒷받침을 한 경전입니다. 여래의 씨앗, 곧 부

10회 맞은 해인사 '팔만대장경 강설대법회' 여래장사상 뒷받침한 <승만경> 주제로 법문

회 현장을 찾았다. 이날 10회를 맞은 강설대법회에서는 은혜사승가대학장 지안 스님이 <승만경>을 주제로 법문을 펼쳤다. 이 시대 대강백 지안 스님은 지난해 4월 28일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 강설대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2010년 3월까지 이어지는 3년간의 법회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경전 36권을 선정해 매월 1회 강의하며 경전의 기본 사상을 설하는 자리다.

지안 스님은 <승만경>은 우바이의 교본(敎本)이라 할 수 있는 경전"이라며 "<승만경>에 나타나는 승만부인의 서원은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모범이 된다는 점에서 보살 교본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승만경>의 원래 제목인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鬘獅子吼一乘大方廣經)>은 '승만부인이 일승(一乘)의 대 방편을 널리 펴기 위해 사자후를 했다(법을 설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승만부인은 진정 부모의 권유로 발심해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법신행의 자기 원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전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교리를 현실생활에 회향시켰다는 점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이룬에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천·회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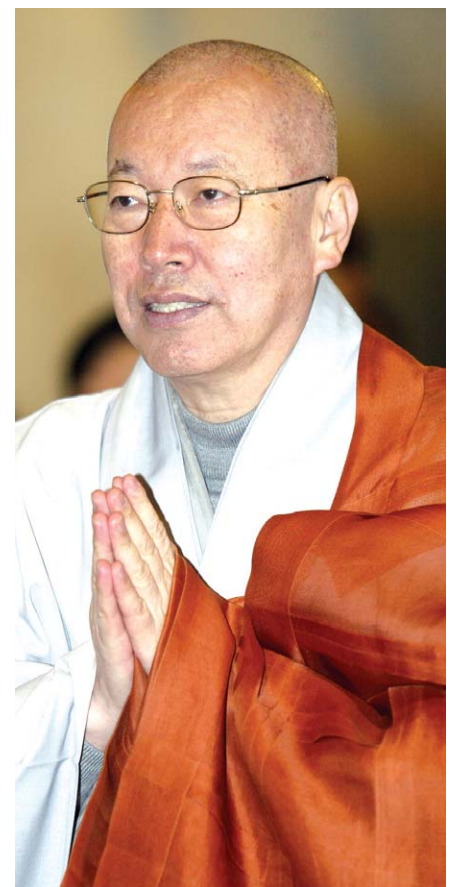
이러 스님은 승만부인의 서원을 어떻게 오늘날 이어 받을 수 있을지를 설명했다. "불자들에게 승만부인처럼 '부처님처럼 살

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래장 사상입니다. 중생의 생사(生死)도 여래장에 의지한 것이며, 여래장이 있기 때문에 열반을 얻을 수 있으며,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 자성(自性)의 여래장에 들어가는 것이 성불의 길임을 밝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만부인이 세운 서원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정법을 수호하겠다는 장엄한 의지를 드러내 놓은 서원입니다. 올바른 진리 곧 정법을 수호하고 나쁜 법에 빠진 사람들을 조복 받도록 하겠다는 마지막 다짐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매우 깊고 큰 것입니다. 몸과 목숨과 재산을 버려서라도 정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바뀌는 어떠한 법난(法難)에도 굽히지 않고 순교자적 정신으로 법을 수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승만부인의 지극한 서원은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려, 여래장이라고 하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부처의 씨앗을 싹틔우게 하며, 또한 여래장의 불씨를 점화해주는 법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승만부인이 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지안 스님은 "<승만경>의 가르침을 되새겨 부처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수지(受持)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내 안의 부처 씨앗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합천 해인사/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지안(志安) 스님은 요산 지안(樂山 志安) 스님은 1947년 경남 하동에서 출생해 1970년 통도사에서 벽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4년 통도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통도사승가대학에서 중강(부교수)을 시작으로 후학 양성에 나섰다. 1978-88년 통도사 강주를 역임하는 등 이어 30여 년간 제방 강원에서 수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2001년 11월부터 조계종립 승가대학원 제3대 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은혜사 승가대학장이다. 양산 통도사 반야암에 주석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신심명 경의> <기초경전 해설> <금강경 이야기-머무름 없이 살라> 등이 있다.

승만부인의 10대 서원

- ① 계를 범할 생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 ② 어른에 대해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 ③ 모든 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 ④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 ⑤ 모든 것에 대해 인색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 ⑥ 나만을 위해 재물을 모으지 않으며, 무릇 받는 것이 다면 가난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성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⑦ 자신을 위해서만 사설법을 행하지 않으며, 애국에 물들지 않는 마음과 결립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이겠습니다.
- ⑧ 고독한 사람, 간혀 있는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등 고통과 재난을 당한 사람을 편안히 의리로서 이익 되게 하여 온갖 고통을 벗어나게 한 뒤에야 떠나겠습니다.
- ⑨ 살아 있는 짐승을 붙잡아 기르거나 계를 범하는 것을 보면 제 힘이 닿는 데 까지 그들을 타이르고 거두어 나쁜 일을 고쳐도록 하겠습니다.
- ⑩ 바른 법을 깊이 새겨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대원 문재현 선사 / 역저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역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 법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법문이 전국 선원에서 열립니다.

- * 서울선원 - 매월 첫째 일요일(3월 4일) - 선가귀감
- * 광주선원 - 매월 셋째 일요일(2월 17일) - 선문염송
- * 부산선원 - 매월 넷째 일요일(2월 24일) - 반야심경

☎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서울 02-3494-0122 / 광주 062-944-4088 / 부산 051-545-2460

-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 바로보인 무문관
- * 바로보인 벽암록
- * 바로보인 천부경
- * 바로보인 금강경
- * 바로보인 신심명
-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 바로보인 증도가
- * 바로보인 선가귀감
- * 바로보인 반야심경
-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 * 영원한현실
-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삼아
- * 앞물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첫눈 하
- * 바로보인 범용선사 심명
- * 주머니 속의 심경

